

글로벌 시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미국가톨릭의료협회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

「 병원 사목의 활성화와 병원 경영의 효율성 제고 」



01



02



03

- 01 Carrol Keehan 수녀(CEO, President)
- 02 최영식 신부(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가톨릭중앙의료원장)
- 03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부회장 채영희 신부(대구가톨릭대의료원장, 우측 두번째) 미국가톨릭의료협회 방문 기념 촬영
- 04 체결된 협약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represented by Vice President Father Young-Hee Chae (Joseph), and 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by the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Sister Carol Keehan, DC.

This Memorandum spells out the intention of both parties to cooperate and form a mutual relationship for improving Catholic health care in both their countries in the following areas.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akes effect on May 20, 2008 and will expire on May 19, 2011 and is subject to renewal upon the agreement of both parties.

1. Both parties agree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expertise in medical care and health care management.
2. Both parties agree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expertise in medical education, including curriculum development.
3. Both parties agree to collaborate to act as liaisons on research in basic and clinical medical sciences and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equipment.
4. Both parties agree to facilitate exchange programs, as desired, for faculty members, residents, and medical students.
5. Both parties agree to cooperate in advancing the mission dimension of Catholic health care.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upon affix their signatures on May 20, 2008.

Matthews Choi & *Sr. Carol Keehan*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Father Young-Sik Choi Sr. Carol Keehan, DC
President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Chae, Young-he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Father Young-Hee Chae (Joseph)
Vice President

가톨릭계의료기관은 '사랑과 봉사의 전인치유' 와 '세계적인 첨단의료' 를 통한 이상적 의료 실현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실현과 가톨릭의료기관의 Mission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직원들에게 가톨릭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의료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인력 교류, 공동연구 및 Business 연계시스템의 구축 등 타 기관과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할 다양한 기회를 가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본 협회의 부회장 채영희 신부(대구가톨릭대학의료원장)는 협회장인 최영식 신부를 대리하여 미국가톨릭의료협회(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 CHA)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The Catholic Health Association of Korea, CHAK)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HA는 미국전역에 690개의 대형병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어 미국 전체 의료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가톨릭의료협의체'로서 책임자인 Carrol Keehan(CEO, President)수녀는 CHAK와의 공동 Mission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표명하고 대구가톨릭대의료원에 무상 회원자격을 주었으며, 양측은 MOU체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한다.

- 가톨릭의료인의 Mission을 위한 공동 사업

- 전인치유를 위한 교육 및 인적교류 & 호스피스, 영적치유, 임상사목 등 각종 프로그램의 공유
- 국제의료봉사 및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의 공동 연구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함.

- 병원 경영과 의료발전

- 전문 인력의 교류와 교육(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행정 등)
- Medical device의 공동 개발과 공동 판매 (약품, 의료용품, 의료소모품 등)

- CHA 회원병원인 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와 협약

- 의료윤리 연구 및 성체줄기세포 공동 연구 - Kevin FitzGerald 신부 (의대교수)
- 의사/기초의학교수/기타 의료인의 인적교류 및 교육, 의료고안품 공동개발과 CHA를 통한 보급, 가톨릭 Mission 공동 수행, 의대생 교육(성 이냐시오 로올라 영성에 따른 환자의 전인적 치유) - Stephen Ray Michell (의대학장)
- 개별화된(personalized patient care) 한국형 암 환자 치료법 개발, 재생의학 공동개발 - Louis M. Weiner (암센터 소장)

이와 같은 계획들을 미국가톨릭의료협회와 한국가톨릭의료협회(가톨릭중앙의료원 & 대구가톨릭대의료원)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상적인 의료구현과 가톨릭 Mission수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가톨릭의료협회 부회장 채영희 신부